

반석위에 집 짓기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누가복음 6:46-49, 흠정역

46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47 내게 나아와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 주리니

48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치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49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1. 어리석은 건축과 현명한 건축

이 설교를 통하여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생을 영위하는 것을 건축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초를 튼튼히, 그리고 충분히 높은 곳에 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 앨라바마주, 미시시피주 및 루지아나주의 해안 지방들에 가보고 저는 그곳 해안의 저지대에 목조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많이 놀랐습니다. 매년 허리케인이 수차례씩 몰려 오는데 해변 또는 해안에서 가까운 곳, 특히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에 집을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석재나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목재로 집을 지으면 강풍과 해일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청소년들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에는 아직도 이렇게 어리석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11살이었던 1958년에 한국 남해안 지방을 강타한 강력한 태풍 사라호는 5천여명의 인명 피해와 37만명의 이재민, 그리고 1억불이 넘는 재산 피해를 가난한 한국민들에게 끼친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민들은 사라호 태풍의 피해를 다시 입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더 이상 목재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시멘트 벽돌이나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하는 것이 오랜 동안 한국 건축의 철칙으로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매년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지만 이런 각성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생에 태풍과 같은 재난이 꼭 올것인데 이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함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생에서 축조하는 건축물이 죽음이라는 대 재앙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인생 사는 동안에 행함으로써 가능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구약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예언된 대 재앙의 저주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후손들 역시 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여러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대 재앙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3:12]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길이 어둠 속에 있는 미끄러운 길같이 되고 그들이 쫓겨나 그 안에서 쓰러지리니 이는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을 징벌하는 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다니엘 9:12]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 위에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하신 자신의 말씀들을 확증하셨사오니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었나이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혼나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직접 그들 가운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적대하고 죽이려 하는 잘못된 태도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37-38]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자신이 두번째 오시기 전에 또 한번의 커다란 재앙이 유대 땅에 올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서기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멸시킨 대 재앙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는 로마군이 이 도시를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미리 대피의 지시를 해 주셔서 신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백만명이상의 사망자 중에 크리스찬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20-24]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자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니라.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젓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 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생에서 짓는 집이 텐트처럼 연약하면 죽음이 이를 때에 파괴되지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은 영원한 집을 짓는다면 이런 집은 하늘 왕국에서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튼튼한 기초위에 인생을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에 견고한 원칙과 도덕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결에 이리 저리 휩쓸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들의 인생 안에 왕으로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증손자인 니므롯은 대홍수 이후 시대에 걸출한 인물로서 여러 도시들을 세우고 오늘날 이라크와 시리아를 이루는 나라를 이루어 강력한 왕이 되었는데, 불행히도 그와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늘에 도달하겠다는 목적으로 바벨에 커다란 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건축 방식으로도 매우 튼튼하게, 거대한 구조물을 지어 상당히 높게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공격행위로서 화살을 쏘아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건축물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건축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지면에 널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아무리 지혜를 모아 커다란 건축물을 지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불행한 결과만 맞게 됩니다.

[창세기 11:4]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자기 부친 다윗 왕이 남긴 막대한 재물과 자신이 모은 자원을 동원하여 오늘날 예루살렘에 황금으로 치장한 웅장한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스러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이 두번이나 완전히 파괴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신약시대의 첫 순교자인 스테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47-50] 솔로몬이 그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르기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건물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성스런 신앙을 원하셨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의 인생을 보면 그가 쓴 매우 훌륭한 잠언의 가르침들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는데 제아무리 많은 금과 튼튼한 석재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하여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입은 모든 영화가 한 송이 들꽃의 영광보다 못하다고 혹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27]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건축에 관한 비유에서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닥쳐 올 큰 재앙을 큰 홍수의 재앙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재앙이 어떤 형태로 올 것인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추수의 비유를 통하여 농부들이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들인 후에 남은 ‘찌꺼기 지푸라기와 껍질’ [Chaff]을 모두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 태워질 지푸라기와 껍질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지에 대하여 계시록이 미리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생에서 모으고 쌓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가 종말의 타작 마당에서 불로 태워 없어질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3:12]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요한계시록 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2. 반석이신 그리스도

성경에서 ‘반석’은 구약 시대부터 여러번 나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즉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암반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모세와 다윗 두분이 반석을 주님 [The LORD],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신명기 32:4]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시편 18:2]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 마셨던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셨다고 선언합니다. 모세와 다윗이 '나의 반석, 우리의 반석'으로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인 그 반석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2-4]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다윗에게 이 반석은 피난처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며 추적하였을 때에 다윗과 그 부하들은 자주 바위산 깊은 곳에 있는 암석굴 속에 피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반석에 빚대어 노래한 것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던 다윗에게는 참으로 현실적인 간절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반석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코비드-19으로부터 안전함과 쉼을 얻고 힘을 새롭게 충전받게 되며, 생의 태풍인 죽음이 올 때에도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안전하게 이사할 것입니다.

[시편 31:2-3]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나를 구원할 방벽의 집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되심은 또한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찬들이 차지하게 될 영원한 구원과 축복의 자리는 마치 반석위에 지은 집처럼 안전하게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시편 95:1] 오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3. 반석위에 집 짓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참된 반석임을 인정한다면, 이 반석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47절에서 “내게 나와와 나의 말을 듣고 이를 행하는 자마다” 반석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세가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공공연히 선언하고, 매일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분의 진리와 원칙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의 진리와 원칙들을 우리 인생의 원칙들로 채택하고 이들을 지키기로 의식적으로 맹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떤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우리가 채택한 주님의 원칙들을 언행으로 매일 부지런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이 인생을 산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산 소망이 항상 있으므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인생은 세상의 유행과 잘못된 기준에 이리 저리 휩쓸려 사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십니까? 주님의 반석위에 인생을 짓고 사는 그런 분의 생활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유심히 관찰하고, 위의 세가지 인생 사는 방침에서 오는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여러분의 인생에도 맛볼 수 있도록 이 세가지 방침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또한 반석위에 지어진 매우 튼튼한, 죽음 너머 영원토록 지속될 훌륭한 집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